

도, 숙박시설 지원사업 공모 시작

중저가 숙박시설 28일까지 ·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3월13일까지 · 전통한옥 개보수 3월3일까지

전북도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다시 찾고 싶은 선진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숙박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사업장당 사업비 최고 1억 7000만원 한도 내에서 60%를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관 및 모텔 같은 일반 숙박시설이 객실, 복도, 로비 등 건물 내·외부 시설개선 후 관광호텔로 등록하거나 20실 이상 객실을 확보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 보조금지원 조건이었던 '굿스테이' 지정을 '한국관광 품질인증' 획득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난립하는 국내 유사 관광인증제도를 통합해 단일 품질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굿스테이' 지정을 중단했으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28일



전북 정보화위원회 출범 ICT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식견을 갖춘 전문가 25명을 제1기 정보화위원으로 위촉했다.

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역시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한옥, 초가집, 너와집, 셋집, 황토집 등 전통가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이축을 지원해 숙박시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단, 숙박시설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지 등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3개소 이상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최고 60%(도 30%, 시군 30%)를 지원받게 되며, 도 사업비는 3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13일까지다.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가공모 역시 이번 주 내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시군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돼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한 한옥이다.

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은 국비 5,000

만원, 시군비 3,000만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이다. 한옥 2개소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3일까지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북투어패스를 발매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관광객들의 발길을 하루 더 붙잡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며 "그 시작이 바로 양질의 숙박업소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귀농귀촌은 전북이 가장 좋아요

도, 준비부터 안정적 정착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 추진

전북도는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준비에서부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추진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귀농귀촌 안정 정착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하고 도시민 1만8,000호를 농촌에 유치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도권 도시민 상담, 귀농학교 운영 등 교육 및 홍보 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살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해 귀농귀촌에 보다 적극적인 도시민이 1개월~1년 내외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농촌 체험과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해 귀농귀촌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멘토컨설팅, 주민유대 강화 사업 등 정착지원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해 도내에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북도는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 및 농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농촌 빈집과 휴경지 정보가 아닌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거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50~60년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증가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 등을 홍보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귀농귀촌 중간지원 조직인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전주시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운영하고 있다.

강승구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속적인 농촌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전북도를 귀농귀촌 허브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22일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관광개발관련 공무원 워크숍'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14개 시군의 관광개발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 투어패스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설명회'에는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한 세종시, 충남도, 전북도 시군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2018년 반영 예산에 대해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세종시와 충남도 등이 함께 협력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자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20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 힘 보탠다

전북도, 기업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 개최

현대자동차 등 도내 20개 기업이 취약계층 안전환경개선 및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전개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2일 현대자동차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등 도내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전북도와 참여기업은 각 기업·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안전문화 캠페인의 분야별·대상별·시기별 공동 추진, 안전문화운동 콘텐츠 및 안전신문고에 대한 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 안전문화 운동을 상호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업무협약 참여 기업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연계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안전용품 기증, 취약계층 안전점검, 재해재난 지원활동 등의 활동이 추진된다.

또한, 참여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 농협중앙회, 세아베스틸 등 우방지대 무인안전벨 설치, CCTV설치사업, 집짓기·집수리, 주거안전 환경개선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전북은행, 전주페이퍼, 일진머티리얼즈, kt, 참프레, 하림은 취약계층 안전환경 개선 및 자체 시설 또는 타 시설과 연계해 대상별 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민 대상 건강안전 의도지원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노약자 등 맞춤형 눈높이 안전교육, 시설개선, 캠페인 등 안전문화확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서는 안전신문고 앱 다운 및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안전문화운동과 접목하여 안전문화 서비스 및 캠페인에 공동참여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참여 기업은 각자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절반근사의 정신으로 전북도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철실히 묻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 해양수산시책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해양수산시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최초 선정됐다.

해양수산시책 평가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해양수산 관련 예산정책 추진도를 평가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전북도는 수산물 양식 확대 및 안전성, 해양사고 발생지감,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승구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해양수산인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돼지 농장 간 제한적 이동 허용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 간 이동금지 연장 조치에 대한 돼지 사육농가 부담을 고려해 도내 제한적 이동을 29일부터 허용한다.

기존 우제류 농장 간 이동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수용가능 두수 초과로 방역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를 제외하고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며, 돼지농가에서는 시군에 이동승인신청

을 하고,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지난 13일 충북 보은 발생 이후 신고가 없지만, 오는 29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로 축산농가에서는 보완 이동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17-250호

댐희망지 신청에 따른 주민설명회개최 공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발생빈도 증가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홍수피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고자 '댐 희망지 신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설명회 개최

| 행사명 | 위 치 | 설명회 개최일시 | 장 소 | 비 고 |
|-----|----------------|----------------------|--------------|-----|
| 노동댐 | 고창읍 고창읍 노동리 일원 | 2017.03.10.(금) 10:00 | 고창읍사무소 2층회의실 | |
| 도솔댐 | 고창읍 아산면 삼인리 일원 | 2017.03.10.(금) 14:00 | 아산면복지회관 2층 | |

2. 참석대상

가. 댐 건설 및 수몰 예정 지역주민(주요 참석 대상)
 나. 계획홍수위선 상·하류 5km 이내의 인근 지역 주민
 다. 기타 이해관계자 및 관심이 있는 지자체 주민

3. 기타 문의방법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724

2017년 2월 23일 고창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